

“아이들 교육하면 수단도 한국처럼 평화 올 것”

〈아프리카〉

광주 살레시오 중·고교 교사 재직한 이탈리아 출신 원선오 신부

남수단 100개학교 짓기…한국인들 도움으로 목표달성 ‘눈앞’

거처간 제자 1만명 이젠 든든한 후원자…“추억 아직도 생생”

“김연아 학교에는 교실에 김연아 브로마이드 사진도 걸려 있어요. 아이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김태희 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화 ‘토즈’의 이태석 신부가 활동했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김연아 학교’, ‘김태희 학교’가 들어섰다. 이탈리아 출신 선교사로서 20년간 광주 살레시오 중·고교 교사로 재직했던 원선오(86) 신부가 한 일이다.

원 신부는 2011년 남수단에 100개 마을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33곳을 완성·운영 중이다. 현재 건설 중인 학교도 18곳 있다. 속도를 좀 더 내면 내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원자 모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원 신부는 지난 25일 서울 신길동 가톨릭 수도회 살레시오회 한국관구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온통 아프리카, 학교, 아이들 생각 뿐이었다.

“세계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60%를 갖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땅과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러서 그런 거예요. 되풀이되는 무지와 가난을 없애려면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를 짓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다. 처음에는 모국 이탈리아 후원자들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한국의 도움으로 사업을 이어 올 수 있었다. 김연아, 김태희 같은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원 신부가 1962년부터 20년간 광주 살레시오 중·고교사로 있을 때 길러낸 제자들이 큰 힘이 됐다. 원

신부를 거쳐 간 학생은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다. 한국사회를 이끄는 세대가 됐고 유명 인사도 많다. 제자들은 수시로 그를 초청했지만 “비행기 샅이면 수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부분 거절했다. 한국을 떠난 지 32년이 흘렀지만 이번 방한이 3번째다. 음악과 교리를 가르쳤던 원 신부는 학교라기보다는 가정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800명 되는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알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등교 때마다 모든 학생을 일일이 안아주면서 맞았죠. 30년도 더 지났지만 같이 축구도 하고 바닷가로 소풍도 갔던 일이 생생합니다.”

원 신부가 아이들과 같이 뒹굴고 지내면서 만든 500여 곡의 생활성가는 한결같이 한국인의 정서와 잘 통했다. 30곡은 천주교회 성가집에도 실렸다. 원 신부는 1982년 정든 한국 땅을 뒤로하고 홀연히 아프리카로 떠난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였다. 케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1994년 수단에 들어갔다. 난민수용소에 아이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지어 운영하다 70%가 넘는 아이들이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현실적인 망상이다. 미쳤다고 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수도회를 찾았지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며 내쳤다. 고령인 그가 아프리카의 절박한 현실을 눈물로 호소하자 사람들 마음이 움직였고 수도회 승인도 떨어졌다. 학교를 짓는 데는 재정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김연아 학교’, ‘김태희 학교’ 등 100개 마을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이탈리아 출신 원선오(86) 신부가 지난 25일 살레시오회 한국관구의 고(故) 이태석 신부 동상 앞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건설회사와 인력, 자체 확보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안한 정세도 큰 변수다.

한국에서 30년간 노동자 사목을 하다가 원 신부와 함께 수단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출신 공 고미노(75) 수사는 “한국 정부기관에서 수단에 이태석 신부 기념병원과 의과대학을 세우려던 계획도 얼마 전 취소됐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부족 간의 전쟁을 보고 불안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원 신부는 갈수록 나빠지는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상황을 가슴 아파했다.

“지금은 서방국가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간 것만 착취는 여전합니다. 자원을 훔쳐 가고 있어요. 수단의 경우는 외국입

체 500여 개가 자원을 사 가는 데 10월에 가서 100원에 팔아요. 콩고에만 나는 콜탄이란 광물이 있는데 외국기업은 이 걸로 큰돈을 벌지만 콩고에는 한푼도 안 돌아와요.”

평생 더 가난한 곳을 찾다니 원 신부는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주민들을 일깨우고 무지와 가난, 부족 간 전쟁을 없애 새 문화를 만들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를 도울 때 정부에 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북구 ‘매니페스토 대상’ 최우수상



광주시 북구(정장 송광운·사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공약의 충실한 실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 위주로 구성된 공약 이행평가단을 구성한 뒤 주민들이 직접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참여자치를 실현해 나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45만 북구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실천하라는 뜻으로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지자체로써의 면모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4년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화사모, 여수서 ‘즐거운 화학세상’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 소속 ‘화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화사모)은 화학을 체험하며 더 쉽게 이해하도록 ‘2014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체험 축제를 지난 27일 여수석유화학교에서 여수 관내 450여 명 초등학생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학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국RC(Responsible Care)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수시청, 한국RC협의회 회원사들의 후원을 받아 전남도교육청 소속 과학교사들로 구성된 ‘화사모’가 주관한 행사이다.

화사모 이학천 회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잠재된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주여협 ‘제22회 광주 여성대회’ 성료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영희)가 주최한 제22회 광주여성 대회가 ‘시대를 창조하는 광주여성, 세상을 움직인다’를 주제로 지난 26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제공〉

고흥 남포미술관·31사단 문화활동 협약



남포미술관(관장 박형수)은 최근 육군 제 31보병사단(소장 박병기) 고흥 대대와 장병들의 정서 함양 및 문화체험활동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포미술관 제공〉

한국지방신문협회 ‘ABC협회 횡포’ 공동 대응기로

대전서 38차 정기총회 개최

회원사간 정보 공유 등 논의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9개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송광석 이하 한신협)는 한국ABC협회의 횡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신협은 지난 25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7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사 대표들은 이날 총회에서 한국ABC협회 횡포 대응, 언론진흥재단 광고대행수수료 하향 조정, 회원사간 공동 기획기사 발굴 및 정보·자료 공유, 정부광고 회원사 의무배정 요구, 편집국장 및 간부 해외연수 등의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한신협은 ABC협회가 부수공사 대상 선정 시 지구 수를 불공평하게 정하고 협회비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려 한 점 등



에 대해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한국신문협회에도 한신협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회원사 대표들은 또 지난 총회에서 현행 10%인 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를 5%로 낮추는 것에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신문사가 ‘빅 데이터’를 활용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회원사별 연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한편 한신협은 이날 총회에서 정충견 경남신문 전 대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편집기자協 오늘 국제 콘퍼런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신문산업의 방향 설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박문홍·사진)는 29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정충원 국무총리,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등 귀빈과 외신기자, 주요 신문사 편집기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의 디지털 변환과 미래의 저널리즘을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정 총리 축사에 이어 제임스 로빈슨 뉴욕타임스 뉴스분석 에디터가 ‘뉴욕타임스의 뉴스룸 도입과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더 이코노미스트 디지털 스토리텔링 뉴스 담당자인 마크 존슨이 ‘이코노미스트의 혁신적인 수익 모델 및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뉴스룸 플랫폼’을, 텍사스트리뷴의 발행인 팀 그릭스가 ‘텍사스트리뷴의 지속성 추구 방법’을 주제로 각각 연설한다.

／양세열기자 hot@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고)박성용·김강남씨 차남 철호군 김동건(전 전남전기공사협회 지부장)·윤정욱씨 차녀 화영양=10월 5일(일) 오후 2시 20분 광주 서구 치평동 피엔제이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이용연(서영대 부총장)·황성임씨 아들 윤군 장준욱씨 딸 최윤영양=10월 3일(금) 오후 5시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라쿠치나. 광주하객 오전 10시30분 롯데마트 월드점점 주차장 B4구역 전세버스(은하수여행) 출발.
▲박화영·김옥연씨 장남 일훈군 최병준(학다리고 교사)·김강순씨 차녀 지은양=10월 4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4층 다이마홀.

▲송명기(용산전력 회장)·이경자씨 차남 현중군 양동운·박선란씨 장녀 일심양=10월 4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양동웨딩의 전당 금호 3층 노블레스홀.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월례회=10월 6일(월)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유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정려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동구자원봉사센터 동화구연 ‘콩덕콩덕, 고운소리이야기쟁이의 외출’수강생=동화구연에 관심이 있고 사회참여활동

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0월 2일까지 기조반, 심화반 각각 선착순 20명 모집 문의 062-228-1365. 062-608-8920.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오 가족창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함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 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전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 수강생=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템플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두암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

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부음

▲김임진씨 별세 주정민(전남대 신문방

송학과 교수)·정인·현수·병자·광순·정화씨 모친상=발인 29일(월) 여수 제일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 061-692-4444.

▲김기래씨 별세 오도순(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평순(전 수협중앙회 자재사업팀장)씨 모친상=발인 30일(화)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삼가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101호 최라명순 님(여/94세) 子/子婦 : 김진관/조순순 女/婿 : 김일녀, 김아녀/장지성, 김삼희/권성을 •발 인 : 9월 30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102호 고정순 님(여/92세) 子/子婦 : 양영철/김정란 女/婿 : 김일녀, 김아녀/장지성, 김삼희/권성을 •발 인 : 9월 30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
201호 최서연씨 님(남/69세) 子/子婦 : 서정민/정나영, 서정호/김아수, 서정희 女/婿 : 서현주/박남석 未亡人 : 조경희 •발 인 : 9월 29일 •장 지 : 화순 동면선영 •연락처 : 227-4381	301호 최이영씨 님(남/76세) 子/子婦 : 이경수/국해경, 이경진/차은비 女/婿 : 이희선/정호일 未亡人 : 박정숙 •발 인 : 9월 2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2
402호 최윤정무 님(남/84세) 子/子婦 : 윤광진/이영애, 윤광호/나원희 女/婿 : 윤복식/조규문 •발 인 : 9월 2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14	

마 음 까 지 편 안 한
孝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 의 (062)227-4000